

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프란치스코회

비상을 꿈꾸는 관록의 봉사 단체

1991년 요셉회란 이름으로 출발하여 베드로회, 밀알회라는 단체명을 거쳐 2008년 두 공동체 통합 후 프란치스코회로 개명되었다. 초창기 3, 40대를 기반으로 구성 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어온 까닭에 현재는 모두 60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지 않은 회원들의 이주와 이탈로 인하여 지난 몇년 간 소수 정예 회원들로 유지되고 있지만 많은 경험과 열혈 봉사 정신으로 친목단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회장 하연승 요한을 필두로, 손흥구 (바오로), 김현걸 (토마스 아퀴나스), 오현주 (요한), 강식 (이보), 이성문 (바오로), 그리고 모든 회원의 배우자들이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알아봅시다 - 프란치스코 성인(1182~1226년)

성 프란치스코(Franciscus)는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에서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프랑스인 어머니는 그에게 요한(Giovanni)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프랑스 사람'이란 뜻의 프란치스코로 개명하였다.

젊은 시절 무모할 정도로 방탕한 시절을 보냈던 그는 1206년 성 베드로 대성당을 순례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 입맞춤을 한 후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 채 알몸이 되어 가난한 삶을 선택했다.

이때부터 성 프란치스코는 노동을 하며 극도의 청빈 생활을 실천했다. 1209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극도의 가난을 살고자 하는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11명의 동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설교의 사명까지 주었다. 이것이 '작은 형제회', 곧 프란치스코회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재산과 인간적인 지식 소유를 거부했고 교계 진출 또한 사양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아니었고 다만 부제였다고 한다. 그들의 공동체는 날로 지원자가 늘어 여러 곳에 분원이 생겼다. 그만큼 그들의 청빈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참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 무렵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길 기도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를 자신의 몸에 입었는데, 이것은 최초로 공식 확인된 오상(五傷)이었다. 그리스도의 오상은 은총의 선물이었으나 그의 일생 내내 계속되면서 동시에 심한 육체적 고통도 안겨 주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마저 실명되어 갔다. 결국 그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가난 중에 임종을 맞이했고 그의 유해는 다음날 아시시에 있는 산 조르조(San Giorgio) 성당에 안장되었다. 마침내 1228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

1979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는 그를 생태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다. 아시시의 가난뱅이 성 프란치스코만큼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다시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그는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가톨릭정보에서 참조 및 발췌)

사진으로 보는 골프대회

이모조모



▲ 참가자 조편성이 한창인 접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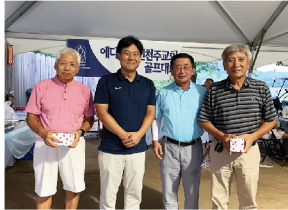
▲ 그린 위에서 여성 출전자들 함께 '찰칵'
▶ 베스트 포드제닉 수상을 노리는 이창우 베드로 형제의 포즈



총 참가인원 52명과 함께 단체 기념 촬영



▶ 티오프를 기다리는 참가자들



▶ 우정 출전 해주신 프린스턴 성당 교우들



▲ 영광의 골프대회 수상자 (왼쪽부터 최저타 우승 유재욱 형제, 남자 1등 변태웅 요셉, 여자 1등 허정자 데레사)

디너타임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2년
9월 1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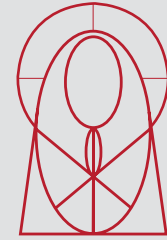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루카 9,23-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지혜서3,1-9
- # 화답송 시편 126(125), 1-2ㄱㄴ, 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ㄴ-39
- #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복음 루카 루카 9,23-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 성가번호 입당 287 봉헌 216 성체 170 파견 283

🌸 미사지향 (연미사)

- 추성태(바오로) - 가족, 이서형(요안나), 최정원(레지나)
- 이택면(예로니모) 신부님 - 안을봉(요셉) 가족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손영학(빈첸시오)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삼기(요셉)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가족 - 채희백(바오로)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채희백(바오로) 가족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하준석(마태오) - 하종무(데레사), 김순옥(울리아), 채우진(사무엘)

- 하연승(요한), 하명숙 - 김순옥(울리아)
- 정영철(프란치스코) - 울드브릿지 구역
- 김정민(말셀리노) 가정 - 가족
- 이종민(예비자), 김진희(아우델리아), 이에원(김벌리 데오도라) - 성낙순(미카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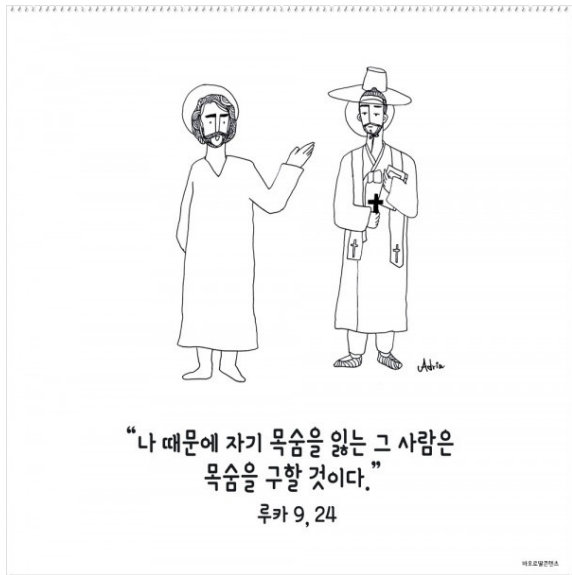
- 유희자(베로니카)) - 이정옥(지타)
-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단원들 - 이서형(요안나)
- Olga Arocho - 송민화(비비안나)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3명).....\$1,788
- 2차헌금 (Peter's Pence) \$679
- 교무금.....\$3,640
 - 황분숙(5-8) 이광호(9-12) 오요한(9-10)
 - 서영원(9-10) 오애희(9-10) 황태진(9)
 - 임문수(9) 추승호(7-8) 한철희(7-10)
 - 손영수(7-9) 박신규(9-10) 김삼식(8)
 - 이호용(8-9) 오용운(8-9)
- 감사헌금.....소녀영 (\$50)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 2차 헌금

- 9월 18일: 유틸리티
- 10월 2일: 유틸리티

🌸 미사 시작 10분전 순교자 성월 기도와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 9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 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사목 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주일학교 기금 마련 음료판매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 (주일) 미사 후 성당입구
- 판매물품
 - 수제 레몬/블루베리청 세트(2병) \$30,
 - 미숫가루 \$10,
 - 냉커피, 냉차, 레몬에이드 \$2 (개인용 컵이 없으신 경우 \$5)
-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커피 쿠폰 1장 구매시 \$2
- 커피 쿠폰 6장 구매시 \$10
- 🌸 주일학교 학생 모집
 - 주일학교가 9월 18일에 시작합니다.
 - 대상: K ~ 8 grade학생
 - 접수비는 \$65/학생
 - 신청은 OLM 성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 Parish Picnic (본당의 날 행사)

- 일시: 10월 2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 장소: 성당 뒷 주차장
- 내용: 오전 10시,한/미 공동체 합동 미사
오전 11시 음식 나눔 및 친교
오후 1시 반려동물 축복식

🌸 로사리오 성월 성모님 성지 순례

- 일시: 10월 11일(화) 오전 8시 성당 출발, 11시 30분 미사, 오후5시 성당도착
- 성지: 체스토호바의 성모님 (검은 성모 성화상) 펜실베니아 주
- 주관: 꾸리아
- 대상: 모든 교우(선착순50명)
- 참가비: \$65 (아침, 점심, 버스비, 성지 봉헌금)
- 신청: 꾸리아 부단장 최현지(안토니아), 회계 한지혜(크리스티나), 사무장

🌸 제 1독서 지혜서3,1-9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 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루카 9,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순교자 성월 이야기 2

이제 정말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아침, 낮, 밤으로 기온 차이도 많이 나죠. 요즘 부모님과 고모, 고모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과 현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각자의 삶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겠으나, 함께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에디스 한인 성당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족, 부부의 희생과 위로와 사랑의 이야기들 여전히 만들어 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신부님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을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까지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나라 124위 순교자들 가운데에도 정말 순교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동정부부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입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순교의 시대를 지내셨기에 신앙 안에서 동정을 지키나 순교하신 부부입니다. 동정부부라고 하면, 동정이라는 것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만, 이분들의 순교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을 온전히 삶으로 내어 주는 모습으로 살되 되고, 그것이 동정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 분위기 안에서는 성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하며, 때로는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서 상대를 더욱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임을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며, 서로 동정을 지키며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과 순교를 행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느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에 하느님을 위해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오로지 하느님을 소유하고 같은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죽음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상대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스스로 자유로이 봉헌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그 죽음을 통해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순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가정을 가진 우리도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의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애정이 식는다는 생각을 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애정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진정한 모습과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습에서 온전히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곧, 하느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하는 묵상 속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하고 순교하는 것이죠. 이 순교자 성월에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동정 부부의 서로를 위한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마음을 받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그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해서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봅시다. 아멘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